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과 종족성: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관계*

주종택(순천향대 국제문화학과)**

- I. 서론
- II. 이론적 관점과 조사지의 특성
- III.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
- IV. 원주민 정책이 종족성에 미치는 영향
- V.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상호작용
- VI. 결론

I. 서론

이 글에서는 원주민에 관한 멕시코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여 현대 사회에서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종족정체성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독립 이후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원주민은 국가의 정통성을 마련해주는 전통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족집단이라고 하겠다. 또한 오늘날 관광산업을 주요한 경제적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는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원주민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03-B00194).

** Jong-Taick Joo(Soonchunhyang University, jtjoo@sch.ac.kr), "Indigenous Policy in Mexico and Ethnicity: Relationship between Mestizo and Indígena".

부분의 원주민에 대한 연구는 원주민 문화의 독특한 성격이나 원주민 운동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런 실정에서 원주민 사회와 원주민 정체성의 특징을 제대로 알아내려면 원주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원주민 사회와 더불어 메스티소사회를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종족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여 멕시코 사회에서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 집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주민과 멕시코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메스티소와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집단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국가적 정책에 미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주민의 존재는 국가정체성의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으로 볼 때, 사회에서 원주민의 위치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원주민은 문화유산의 계승자이지만 열악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여건에 놓여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발전을 유도하는데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들의 사회인식과 메스티소가 원주민을 바라보는 형식과 내용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찾아내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원주민 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겠다.

II. 이론적 관점과 조사지의 특성

II.1. 기존연구의 현황과 문제

국가정체성과 종족정체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족성에 대한 관심은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적 정책에 반영되었다(Doremus 2001; Purnell 2002; Tressiera 1994, 187-189;

Wade 2001). 이런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은 초기의 동화, 통합 정책을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여, 오늘날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원주민을 보호하려는 온정주의적 정책인 인디헤니즘(Indigenismo), 혹은 원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원주민의 주체적인 사상인 인디아니즘(Indianismo) 등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정책적 관심에서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원주민과 비원주민을 구분하고, 무엇을 근거로 원주민을 정의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종족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종족간의 차이를 구분(Cornell 1996, 269-270; Hagendoorn 1993, 26-27; Tragerl 1999)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종족을 구분하고 종족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종족성을 바라보는 인식론에 관한 논의가 과거보다 활발해졌다. 즉, 종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족성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종족성이 인식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종족성에 관한 관점은 주로 근원주의(primordialism)와 도구주의(instrumentalism) 혹은 상황주의(circumstantialism, situationalism)로 나뉘어졌다(Eller and Coughlan 1993; Jenkins 1996, 811; Scott 1990, 148). 근원주의는 종족성을 주어진 개인과 집단에 존재하는 원초적 형태의 의식으로 간주한다. 즉, 종족성은 집단과 개인의 문화적, 심리적, 생물학적 인간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며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와 의식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도구주의는 종족성이 상황적으로 규정되고 전략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종족성이 생물학적으로 생성되지만 사회적으로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공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문화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종족성은 사회적으로 변화하며 조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이 사는 장소나 시기,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관점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집단은 자신의 종족성을 스스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분석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성주의(constructionism, constructivism)의 등장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하겠다(Cornell and Hartmann 1998, 72-73; Tilley 1997, 499-515). 구성주의에서는 종족성이란 사람에 따라 원천적으로 주어지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종족성이 주어진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 집단이 임의로 규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여건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외부사회에 의해 강요되기도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국가의 원주민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대응이 원주민의 종족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구성주의를 활용하면서 종족성을 구체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면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이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원주민 종족성과 사회에 대한 기술은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을 그대로 반영하여 잘못되었다(Eriksen 1993; Nutini 1997; Schryer 1993, 203)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간과하는 것은 원주민사회가 과거와 달리 이질적이며 시대에 따라 꾸준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 사회는 완전히 통합되어있지도 않고 내적 차이도 존재한다(Tejera Gaona 1993, 192). 또한 종족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원주민만이 소유하는 원주민성(Indianness)이라는 이념도 찾아보기 어렵다(Ströbele-Gregor 1994, 113-114). 한편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족정체성을 보려는 시도에서는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메스티소도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다(Hale 1994, 28)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II.2. 새로운 모델과 관점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족간의 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종족성 혹은 종족정체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종족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쉽지 않게 된다. 특히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다른 사회의 소수민족들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원주민의 종족정체성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식민시대 이후부터 피부색에 의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통의 계승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서구사회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단순한 사회적·생물학적 성격만으로 멕시코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종족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종족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면 먼저 원주민 사회와 메스티소 사회를 각각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비교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원주민 사회와 비원주민 사회인 메스티소 사회에서 종족정체성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낸 다음에, 이런 종족정체성이 상이한 종족 사이의 사회관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원주민이나 메스티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살펴본 다음에(Urban and Sherzer 1991, 5 참조), 외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종족성의 형태와 내용이 과거와 현재의 특정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종족정체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될 때는 갈등과 경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Stephen 1996, 17-18).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종족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종족 정체성이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며, 변화되는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 혹은 집단적,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이런 개념들이 적용되는 형태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종족집단은 내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만, 사회에서는 특정집단이 동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고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런 관념은 국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런 편견을 제거하고 종족 집단 내부와 하나의 종족집단이 다른 종족집단과 사회적 거래를 형성할 때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종족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려 하지만 어떤 차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느냐가 문제가 된다(Brah 1996). 멕시코의 원주민 집단은 서로 지리적·정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공통의 문화와 가치관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족성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와 사회경제적·정치적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의 종족정체성도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정체성을 하나의 복합적인 사회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주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원주민이라고 규정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신을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Frye 1996). 즉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종족정체성과 개인이 생각하는 종족정체성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포함한 종족집단의 정체성은 국가의 원주민 정책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된다. 원주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주민 사회도 사회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유사한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원주민들은 하나의 동일한 종

족정체성이 아니라 복합적 종족정체성(multiple ethnic identities)을 소유한다. 이런 결과를 메스티소 사회의 분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원주민 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알아보고 이것이 원주민과 메스티소 정체성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종족집단의 사회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활용되는지를 명확히 밝히려고 한다.

II.3. 조사지의 개관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는 멕시코 오아하카 주의 ‘산 환 텔 에스타도’와 ‘누에보 소키아팜’이라는 무니시피오(municipio)에서 실시되었다. ‘산 환 텔 에스타도’는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메스티소 마을로서 오아하카 주의 수도인 오아하카 시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과 오아하카 시는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Pan American Highway) 등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도 매우 편리한 편이어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정책도 쉽게 반영되는 등 메스티소 사회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누에보 소키아팜’은 오아하카 시의 북쪽의 시에라 화레스(Sierra Juárez) 산맥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원주민어를 사용하고 오아하카 시와도 비포장 도로로 연결되고 교통도 대단히 불편해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원주민 마을이다. 이 두 마을은 모두 가구수가 500여개 되고 인구는 2,000명 정도여서(2000년 센서스에서는 산 환 텔 에스타도는 2,285명, 누에보 소키아팜은 1,757명) 면접과 참여관찰을 하기에는 대단히 적합한 마을이라고 하겠다. 이 두 마을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인맥,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III.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

III.1. 식민시대와 독립이후의 원주민 정책

식민시대에는 ‘원주민공화국’(república de indios)과 ‘스페인인공화국’(república de españoles)이라는 명칭으로 원주민과 백인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였다.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 일부의 원주민들이 메스티소로 바뀌는 것을 허용하면서 피지배층을 정치적, 종족적으로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부분적으로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원주민들을 메스티소화함으로써 식민정부에 대한 지지세력을 넓히고 지배와 착취의 대상을 줄여서 식민통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런 정책의 영향으로 메스티소로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원주민들에게 열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편견을 남겨놓았다(Friedlander 1975, 71; Knight 1990, 100).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멕시코 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노력은 국민들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독립 이후 보수주의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주의자들은 억압과 복종으로 얼룩진 식민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의 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정치지도자들은 원주민들을 근대화의 과정에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Mattiace 2003, 57). 특히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의 과학기술관료들은 원주민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혼혈집단인 메스티소와 몰라토도 퇴화된 것으로 인식했다(Stern 2003, 189). 이들은 국가를 종족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의도에서 유럽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피부색을 희게 만들고(blanqueamiento) 원주민들을 동화와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원주민의 적극적 개선과 변화를 유도하는 원주민 정책은 혁명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행정적으로도 메스티소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로 하여금 인근의 원주민 마을

을 관할하게 하여서 원주민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였다 (Dietz 2004, 34).

III.2. 혁명 이후의 원주민 정책

혁명이 끝나면서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아센다도와 정치지도자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받던 일부의 원주민들은 혁명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혁명 이후의 정부는 원주민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1917년 이후 권력을 장악한 혁명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들은 국가적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 원주민의 과거를 활용하였고 원주민 문화를 국가적 유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1920년부터는 국가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Mattiace 2003, 59; Wade 1997, 32). 그렇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가 멕시코를 원주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유럽의 종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원주민 종족과 문화도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모호한 특징을 가졌다고 간주되었던 메스티소라는 혼혈집단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하도록 하였다. 즉 백인들이 원주민과 피를 섞어서 순수하지 못한 혈통을 지닌 종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이나 원주민의 장점을 발전시켜서 보다 우수한 생물학적 특징을 지닌 메스티소라는 종족이 태어난다는 것이다(Rahier 2004, 284).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원주민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결합되어 훨씬 다양하고 의미 있는 메스티소 문화가 확산된다고 믿었다. 사회문화적, 종족적으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멕시코에서 사회발전과 단일성을 확보하려면 원주민을 메스티소로 변화시켜서 사회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족의 차이에 따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원주민들을 농민으로 인식시킴으로써 (Brysk 2000, 263) 원주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메스티소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긍정적 인식은 대중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서 메스티소와 관련된 영화, 연극, 벽화 등이 줄을 이어 등장했다(Stern 2003, 190).

원주민을 메스티소로 바꾸려는 메스티소화(mestizaje)라는 현상은 인류학자인 가미오(Gamio)와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으며 1920-1924년까지 교육부 장관이었던 바스콘셀로스(Vasconcelos)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가미오는 원주민 문화의 파괴 없이 원주민의 경제적·지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Gamio 1916). 그는 용감한 원주민과 정복 이전의 원주민문화를 이상화하면서, 원주민 문화를 계승하는 메스티소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민족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원주민 문화의 특이성을 보존시키기보다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Hewitt de Alcántara 1984). 이에 비해 바스콘셀로스(1925)는 메스티소를 우주적 인종(*la raza cósmica*)이라고 규정하면서 메스티소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적 우생학보다는 정신적 우생학을 통해서 원주민, 아시아인, 백인, 흑인을 뛰어넘는 다섯 번째 인종인 메스티소가 등장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메스티소가 미래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Hedrick 2003, 20). 가미오와 바스콘셀로스는(Gamio and Vasconcelos 1926) 생물학자인 라마크와 멘델의 유전학 이론을 근거로 잡종의 동식물이 우수한 형질을 지니는 것처럼 메스티소도 우수한 특질을 지닌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영향으로 많은 미국과 멕시코의 인류학자들이 가장 전통적이며 외부사회의 영향을 적게 받은 원주민 사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Wade 1997, 42). 그러나 이들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원주민 문화는 전통적인 것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III.3. 인디헤니스모의 등장과 발전

원주민의 메스티소화라는 목표를 지닌 일련의 원주민 정책인 인디헤니스모가 20세기에 들어서서 멕시코 정부의 이념으로 성립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원주민사회를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사라지게 만들 목적을 갖고 있으며, 계획적인 문화변용을 통해서 원주민 집단을 사회적, 문화적, 종족적으로 통합시키는 ‘원주민의 멕시코화’를 지향하였다(Dietz 2004, 41; de la Peña 2002, 130). 구체적으로는 통신수단의 개선, 도로건설, 시장경제의 확대, 교육과 사회발전의 수단으로 원주민사회를 주류사회에 통합시키려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인디헤니스모는 1940년에 시작되었는데 이것의 주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 문화의 존중, 원주민에게 불리한 법률과 관행의 거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 부여, 원주민 문화의 긍정적 가치 존중, 원주민에게 현대적 기술을 제공하고 이들의 경제적 상승과 동화를 촉진, 원주민사회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공동체의 동의를 수반(Stavenhagen 2002, 27). 초창기 인디헤니스모의 관점은 온정주의적 발전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원주민을 동화시키고 근대화시킴으로써 메스티소 정체성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Sieder 2002, 191).

인디헤니스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원주민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1948년 국립원주민연구원(INI: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을 설립하였다. 연구원은 지역마다 ‘원주민 조정센터’(Centros Coordinadores Indigenistas)를 세워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발전 및 복지기관과 협력하면서 원주민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원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립원주민연구원의 노력은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원주민사회를 근대화시키는 데 관심을 집중시켰다. 연구원의 행정구조는 원주민 사회를 ‘피난지역’(regions of refuge)이라고 부른 인류학자 아기레 벨트란(Aguirre Beltrán)의 모델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즉, 원주민사회는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보다 발전된 메스티소 사회 부근에 위치한 고립되고 뒤쳐진 사회라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문화변용을 통해서 정부가 통합정책을 펼 때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Mattiace 2003, 61). 1951년에는 치아파스 주의 산 크리스토팔 텔 라스 카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에 최초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벨트란은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이중언어교육과 원주

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문화변용을 통한 통합의 정책에서는 원주민사회에서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교육체계 내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동시에 성인교육과 지역발전 등 여러 가지 학교 밖의 행사에도 참여했다. 그렇지만 1970년대가 되면서 교사들의 이중적 역할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였고 인디헤니스모 정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Dietz 2004, 43). 먼저 기본적인 자료와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학교에서 원주민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가 불가능했다. 교사들도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이중문화 교과과정을 편성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 마을에서는 교사들의 지침을 따른 소수의 사람들이 원주민 마을을 떠나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에,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초등교육도 거의 이수하지 못한 채로 남게 되어서 원주민사회의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교사들이 마을의 발전계획에 참여하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인디헤니스모 담당기관에서 파견한 외부인으로 간주하면서 마을 관리들이 이들의 간섭에 저항을 하게 되었다. 결국 원주민사회를 개방시켜서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원주민들의 비협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Ⅲ.4. 인디헤니스모의 변화와 평가

인디헤니스모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멕시코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은 원주민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당시의 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PRI)의 관리들은 무원칙적인 원주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인디헤니스모를 비판했다. 국립원주민연구원도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련의 원주민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원주민들이 극심한

착취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야당인 국민행동당(PAN)과 민주혁명당(PRD)의 비판도 거세지면서 정부는 그 동안의 동화와 통합을 포기하고 ‘참여적 인디헤니스모’로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다(de la Peña 2002, 69). 원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디헤니스모의 온정주의적 성격은 여전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멕시코 정부는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농촌의 원주민 인구를 종족적으로 동질화하려는 인디헤니스모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Dietz 2004, 49).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혁명 이후에 원주민들과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하던 농지개혁을 중단하고, 원주민들이 소유하던 마을의 공동토지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헌법 27조를 개정하였으며, 농업발전 정책도 자본주의의 경쟁에 입각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탈중앙집권화, 토지의 사유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원주민사회에도 적용이 되면서 원주민들은 급속하게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 멀어지게 되고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축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Clearly and Steigenga 2004, 13). 이런 변화에 대해 원주민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 원주민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조건 개선과 더불어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디헤니스모는 원주민을 주류사회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서 원주민들의 사회적 적응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지지고 있다. 그러나 인디헤니스모는 추진 배경과 방식, 이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Mattiace 2003, 81). 먼저 인디헤니스모는 원주민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인과 메스티소 등 엘리트들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져서 원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관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국립원주민연구원의 경우에 다른 정부관리들 보다 원주민에 관해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주민사회의 정치경제적 차원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점

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 문화의 유지와 경제적 착취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주도의 인디헤니즘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원주민을 메스티소화해서 동질적인 사회를 구성하려는 노력보다 원주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하였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멕시코 정부는 1992년에 헌법 4조를 개정해서 멕시코가 문화다원적 국가임을 선언했다. 1990년대의 원주민정책은 인권과 문화다원주의라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Sieder 2002, 199), 처음으로 원주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과거처럼 원주민들이 멕시코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며 동시에 멕시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인했다. 물론 구체적으로 원주민의 권리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제한적 의미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5. 원주민 의식의 변화와 원주민 운동

인디헤니즘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원주민들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디헤니즘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정책은 원주민의식의 향상과 원주민조직 및 운동의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주종택 1996, 79-82; Dietz 2004, 42; Mattiace 2003, 56). 예를 들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게다가 국립원주민연구원의 관리들은 정부의 관리들보다는 원주민에게 훨씬 우호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원주민들의 주장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원주민과 노조, 정당, 교사 등 원주민사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서 원주민의 전통과 관습을 다시 복원시키거나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Dietz 2004, 55). 예

를 들면 카르고 제도를 강화하여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면서 외부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다(주종택 1998 참조).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제도를 시대에 맞게 변형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일부의 마을에서는 여성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마을의 구성원에게도 정치적 참여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과거의 전원합의보다는 투표와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특히 원주민의 조직적 운동이 활발해진 이유는 에히도를 포함한 공동토지의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실시에 있었다. 그전까지는 지역, 언어, 문화 등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 원주민들의 조직운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보편적으로 원주민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서로 다른 원주민 집단 사이에 쉽게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인디헤니سم오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된 원주민 운동은 공정한 원주민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단순하게 지역적 차원에서 원주민 사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요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포함한 국가적 영역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대했다(Sieder 2002, 193). 이런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시작된 치아파스 주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봉기이다. 이전까지는 과거의 혁명이념에 집착하는 농민운동과 문화적 영역을 중시하는 원주민운동으로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구분되었으나 사파티스타 봉기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사회운동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과거에는 단순히 가난한 원주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합법적인 요구사항을 위해 투쟁하는 의식 있는 시민으로 변화한 것이다. 치아파스에 이어 원주민 인구가 많은 오아하카 주에서도 원주민의 종족정체성을 일깨우며 자신들의 권리향상을 의도하는 조직적 운동이 전개되었다(Norget 2004). 이들의 주장과 실행방식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자치를 비롯한 원주민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가에 의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IV. 원주민 정책이 종족성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사회에 있어서 원주민과 원주민문화의 존재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주민과 원주민문화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즉 유럽과는 다른 멕시코의 정체성이 원주민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메스티소화를 통해서 원주민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한편으로는 고유한 원주민문화를 보존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볼 것이다(Hedrick 2003, 113). 결국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은 원주민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원주민들을 메스티소화함으로써 종족적으로 동질화하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노력은 원주민과 메스티소, 백인 등 다양한 종족의 이해관계를 통합해야 가능한 것이어서 항상 논란이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다원적인 원주민정책의 결과로 원주민의 정의와 원주민 및 메스티소의 정체성이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서 혼란이 야기된다.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은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동질적 사회를 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하나로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다. 정책이 사회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주민과 원주민 문화에 대한 평가도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의 정체성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주민 정체성을 버리고 메스티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주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전통적 사회질서를 보존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디헤니즘의 실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주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자신들을 메스티소라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순수한 원주민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메스티소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원주민과 메스티소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는 원주민 사이의 사회관계보다는

원주민과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메스티소와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출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족성은 사회적 담론에서 어떻게 차이가 구성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Brah 1998, 41).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차이가 국가 정책에 의해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원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집단적으로 규정하는 정체성을 지닐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백인들에 의해 메스티소가 등장하면서 원주민들은 백인들이나 메스티소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문화를 지닌 원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메스티소와 차별화시킨 것이다(Hewitt de Alcántara 1984, 47; Wade 1997, 41). 메스티소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메스티소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원주민은 주변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즉, 메스티소들은 원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내세우면서 원주민들을 야만적이고 무지하다고 보는 것이다(Parra Mora y Hernández Díaz 1994, 161). 메스티소들은 원주민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면서 열등한 지위를 부여했고, 자신들의 착취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메스티소와 원주민을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원주민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농촌지역의 메스티소와 원주민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종족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먼저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는 원주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주민어의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19세기 말이 되면서 원주민어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마을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지만 교사들은 대부분 오아하카 시나 인근의 메스티소 마을에서 온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 근처의 산간지역에 아직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혹은 외부 사람들이 자신들을 원주민이라고 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신들

이 메스티소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주저한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 자신이 메스티소나 원주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들이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메스티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국가의 원주민 정책에 나타나는 원주민에 대한 이해가 시기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종족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사들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는 마을에서 원주민어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원주민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지금은 원주민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은 없고 원주민어인 사포테코어는 일상생활의 비공식적 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두 마을의 사례를 보면 원주민이나 메스티소의 정체성은 국가의 종족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종족성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상은 우선 원주민이나 메스티소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원주민이나 메스티소 사회도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들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사회가 동질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문화와 행위를 기준으로 종족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Valdez 1998, 149-150).

메스티소는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주민과 메스티소는 분리하기 어려운 특질을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메스티소와 원주민을 구분하는 피부색이나 문화적 특징을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디부터 원주민이며 어디까지 메스티소인지가 분

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사회적으로 형성된 편견과 더불어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에 의해 특정한 사람의 종족정체성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며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에 의해 종족성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들의 종족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재구성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V.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상호작용

V.1.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정체성

인구 센서스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정의되는 정체성과 실제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정체성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원주민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메스티소라고 규정되지만, 농촌지역이고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산간지역 인근이라는 이유로 원주민이라고 인식되는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정부의 관리들이나 도시에 사는 외부인들은 산 환 델 에스타도의 문화적 특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주민이라고 간주하는 사례가 많다. 오아하카 시내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산 환 델 에스타도 주민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멕시코 시티에서 온 관광객이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서 산 환에 산다고 하니까 그 곳이 산 근처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요즈음은 원주민들도 살기가 한결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사포테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주민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지금은 원주민이라도 말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하며 그래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Celerino, 45세). 이렇게 산 환 델 에스타도의 사람들이 원주민으로 취급을 당하는 경우는 정부 관리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오아하카 주정부의 관리는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원주민이라고 간주되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멕시코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지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원주민에 대한 지원은 부정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산 환 같은 경우에도 원주민을 위한 지원책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인근의 원주민 마을이 이번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Constantino, 49세). 누에보 소키아팜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는 덜 심한 편이다. 특히 마을 내에서는 자신들이 원주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고 이것 때문에 마을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다. 또한 마을 내에서 사포테코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 언어를 두고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사포테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포테코어를 함께 쓰지만, 한 사람이라도 사포테코어를 모르면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자신들이 원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메스티소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부사회에서 자신들을 원주민이라고 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오아하카 시장에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장사를 하는 한 사람은 자신이 겪은 것을 이렇게 말했다. “마을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런데 오아하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어디서 왔느냐, 사포테코어를 쓰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내가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려고 한다. 마을에서 사포테코어를 쓰는 것도 예전부터 해 오던 관습이고, 또 사포테코어를 사용하면 훨씬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원주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아하카에 나가면 절대로 사포테코어는 안 쓴다”(Martin, 57세).

V.2. 집단내부의 다양성

같은 마을이라도 모든 개인이 동일한 종족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문화적·신체적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상이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는 마을 전체적으로는 자신들이 메스티소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메스티소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주민과 메스티소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원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학력수준도 낮아서 원주민들과 별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메스티소라고 주장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사포테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ilvio, 53세). 특히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을 내의 정치적, 종교적 활동도 비교적 왕성한 중심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보다 산 아래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메스티소라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형편이 어려워서 마을 사람들과 접촉도 많지 않고 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는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원주민이면 어떻고 메스티소면 어떤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데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 메스티소라고 해도 오아하카나 시내에 나간다고 사람대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요즘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어디서나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돈 없는 사람들은 성당에 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모임에 넣어주지도 않는다. 마을 회의에 가도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Floriberto, 64세).

누에보 소키아팜의 경우에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의 차이가 훨씬 심하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주민 조상들의 혈통을 이어받고 사포테코어를 사용하는 등 원주민의 문화적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원주민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널리 퍼져있어서 자신을 원주민이 아니라고 규정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무지하

고 미개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시내에 나가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자꾸만 우리가 원주민이 아니냐고 말하니까 좀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Virgilio, 60세).

V.3. 사회관계와 정체성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인식되던 오아하카의 농촌지역에서도 외부사회와의 관계가 빈번해지고 도시지역의 문명과 교육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각 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원주민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일반적 시각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부터 미국으로 합법 혹은 불법으로 국제노동이주를 하게 되면서 서구사회의 인종에 대한 견해와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주종택 2000a). 이렇게 되면서 원주민어는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생각에 원주민 스스로 원주민의 전통문화나 사포테코어 등에 대해서는 더욱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다.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3년이 된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더 좋고 바람직한 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미국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겨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가면 라티노라고 차별을 하는데 거기다가 원주민이라고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오아하카에서 왔다고 답하지만 오아하카의 원주민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Fernando, 32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산 환 델 에스타도에 비해 외부사회와의 사회관계가 확산되는 것이 정체성의 유지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 먼

저 교육을 통해서 누에보 소키아팜의 학생들은 메스티소 중심의 사회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문화가 상대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교육을 통한 원주민성의 부정적 인식은 교과서의 내용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마을의 초등학교를 마치고 오아하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르쳐주려고 애를 쓴다. 전에는 우리 마을에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중고등학교를 마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물론 교육을 위해 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마을에서 내가 어렸을 때보다 사포테코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사포테코어를 쓰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잘 하지 못하고 간단한 대화를 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Pedro, 16세). 한편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천주교 이외에 개신교 신자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주종택 2000b). 개신교의 유입은 천주교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의례와 축제의 약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원주민 정체성의 쇠퇴를 가져온다(주종택 2002, 213-215). 즉,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면서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공민적-종교적 위계체계나 마요르도미아 제도가 약화된다는 것은 원주민성의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마을 내의 한 개신교회에 다니는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천주교회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전에 하던대로 했다. 그렇지만 개신교로 바꾸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이 많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도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Delfina, 34세).

V.4. 불명확한 정체성

종족의 구분이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조건보다는 문화적 혹은 지리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고정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관적 인지나 문화적 특징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종족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메스티소나 원주민의 종족 정체성은 모호하며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종족성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변화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람이 종족구조 내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산 환 텔 에스타도에서는 개인적인 접촉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자신들을 원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경제적 지위를 비하해서 말하거나 주류사회와 비교해서 자신들을 평가할 때 자신들이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주종택 1997, 68-70). 이것은 같은 메스티소라도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처지가 원주민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개인의 생각과 노력에 의해서 정체성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문화적으로 전통적인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주류사회의 담론을 고려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게 된다(주종택 2002, 221). 즉 자신들이 본질적으로는 원주민에 속한다고 보지만 사회적 상황의 변화나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원주민성을 강조하지 않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자신들의 원주민 종족성을 강화시켜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적 변화, 사회관계와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비원주민들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정체성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 혹은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

해 정체성이 영향을 받아 종족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면 실리틀라(Xilitla) 사회에서도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주관적 인지는 유동적이다. 주어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개념은 다르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원주민 종족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원주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Tiedje 2002, 310). 이렇게 원주민 운동이 활성화되거나 원주민 의식이 새롭게 발전되는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원주민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도 있다.

VI. 결론

정책적으로 원주민성을 변화시키고 원주민 문화를 개선시키려는 멕시코 정부의 노력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완벽하게 종족문제를 해결하거나 종족성을 분명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나 메스티소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원주민이 메스티소가 되는 것을 장려했지만, 구체적으로 메스티소가 종족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고 메스티소들이 지니는 문화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게 되어, 아직도 메스티소 중에 원주민 정체성에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인 사람이 남아있다. 다시 말해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원주민의 메스티소화 정책은 원주민과 일부의 메스티소들의 정체성이 불명확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체성의 불명확성은 원주민과 원주민 혹은 메스티소와 메스티소 사이의 사회관계보다 원주민과 메스티소 사이의 사회관계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종족 정체성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집단 내부에 상이한 종족성을 갖는 사람들이 혼재하게 된다.

멕시코 사회에서는 원주민의 비율이 감소하고 근대화의 영향으로

사회에서 원주민이 차지하는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수는 급격하고 줄지 않고 있으며,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차별성도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래에 들어서서 원주민 의식이 되살아나고 원주민들의 조직적인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원주민성과 원주민 정체성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종족정체성을 둘러싼 상호모순적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정체성이 고정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해지면서, 개인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종족정체성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족정체성을 개인이나 집단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종족정체성이 스스로 생각하는 집단 내부의 내적 담론과 국가의 정책을 포함하는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외적 담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도 주어진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일생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많은 경우에는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종족정체성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메스티소의 경우에 백인들이나 피부색이 옅은 메스티소를 만날 때에는 자신을 원주민에 가깝게 인식하는 반면에 원주민을 만날 때에는 확실히 메스티소임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원주민이 다른 원주민을 만나거나, 원주민이 백인이나 메스티소를 만났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try to analyze the problems of indigenous and mestizo ethnic identities in relation to the indigenous policy of Mexican

government.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ir ethnic identity,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mparative study on both indigenous and mestizo societies.

The colonial society was clearly divided into two distinct ethnic groups, *indigenas* and Europeans. After the independence, in spite of increasing number of mestizo, basic ethnic policy remained same as that of the colonial period. *Indigenismo*,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Mexican Revolution,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Mexicanization of *indigenas*, which aimed to integrate indigenous people into the Mexican society by means of planned acculturation. Based on the idea of paternalistic development, *indigenismo* was used to develop mestizo identity among indigenous people while modernizing the indigenous communities. Even though *indigenismo* failed to modernize the indigenous communities, it had severe effects on the elevation of indigenous ethnic consciousness and the revitalization of indigenous organizations and their social movements.

Due to inappropriate and sometimes inconsistent ethnic policy throughout history in Mexico, ethnic identities among mestizo and indigenous people become much more complicated than ever before. First, there is a noticeable discrepancy between ethnic identities defined by the social and national institution and those used in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Second, multiplicity of ethnic identities can be found among the villagers sharing same cultural elements and physical traits. Third, thanks to the opening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many indigenous people begin to look down on their ethn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ccept the dominant ethnic ideology. Finally, mestizo and indigenous ethnic identities are understood very ambiguously in many occasions and have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the specific social situations.

Key Words: Mexico, Indigenous Policy, Indigenismo, Mestizo, Indigena / 멕시코, 원주민정책, 인디헤니슴, 메스티소, 원주민

논문투고일자: 2005. 10. 18

심사완료일자: 2005. 11. 11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참고문헌

- 주종택(1996), 「멕시코 종족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의 상황」, 『지역연구』 Vol. 5, No. 2, pp. 69-92.
- _____ (1997), 「불명확한 메스티소 정체성: 멕시코 농촌지역의 종족성의 정치경제」, 『한국문화인류학』 Vol. 30, No.1, pp. 53-80.
- _____ (1998), 「멕시코 농촌지역의 정치적 참여: 정치행위와 정치문화」,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1, No. 1, pp. 39-84.
- _____ (2000a), 「멕시코의 경제위기와 농촌지역의 국제 노동이주」,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3, No. 1, pp. 165-204.
- _____ (2000b),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종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2, pp. 331-360.
- _____ (2002), 「멕시코 원주민 정체성의 특징과 문화적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Vol. 35, No. 1, pp. 201-226.
- Brah, Avatar(1996), *Cartographies of Diaspora: Contesting Identities*, London: Routledge.
- Brysk, Alison(2000), *From Tribal Village to Global Village: Indi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atin Americ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learly, Edward L. and Timothy J. Steigenga(2004), “Resurgent Voices: Indians, Politics, and Religion in Latin America,” in Edward L. Clearly and Timothy J. Steigenga(eds.), *Resurgent Voices in Latin America: Indigenous Peoples, Political Mobilization, and Religious Chang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pp. 1-24.
- Cornell, Stephen(1996), “The Variable Ties that Bind: Content and Circumstance in Ethnic Process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9, No. 2, pp. 265-289.

- Cornell, Stephen and Douglas Hartmann(1998), *Ethnicity and Race: Making Identities in a Changing World*, Thousand Oaks, CA: Pine Forge.
- de la Peña, Guillermo(2002), "Social Citizenship, Ethnic Minority Demands, Human Rights and Neoliberal Paradoxes: A Case Study in Western Mexico,"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Indigenous Rights, Diversity and Democracy*,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129-156.
- Dietz, Gunther(2004), "From Indigenismo to Zapatismo: The Struggle for a Multi-ethnic Mexican Society," in Nancy Grey Postero and Leon Zamosc(eds.), *The Struggle for Indigenous Rights in Latin America*,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pp. 32-80.
- Doremus, Anne(2001), "Indigenism, Mestizaje, and National Identity in Mexico during the 1940s and the 1950s," *Mexican Studies/Estudios Mexicanos* Vol. 17, No. 2, pp. 375-402.
- Eller, Jack David and Reed M. Coughlan(1993), "The Poverty of Primordialism: the Demystification of Ethnic Attachme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6, No. 2, pp. 183-202.
- Eriksen, Thomas Hylland(1993), "What is Ethnicity?," in Eriksen, Thomas Hylland(ed.), *Ethnicity and Nationalism: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London: Pluto, pp. 1-17.
- Friedlander, Judith(1975), *Being Indian in Hueyapan: A Study of Forced Identity in Contemporary Mexico*, N.Y.: St. Martin's.
- Frye, David(1996), *Indians into Mexicans: History and Identity in a Mexican Tow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Gamio, Manuel(1916), *Forjando patria*, México, D.F.: Porrúa.
- Gamio, Manuel and José Vasconcelos(1926) *Aspects of Mexican Civil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gendoorn, Louk(1993), "Ethnic Categorization and Outgroup Exclusion: Cultural Values and Social Stereotypes in the

- Construction of Ethnic Hierarch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6, No. 1, pp. 26-51.
- Hale, Charles R.(1994), "Between Che Guevara and the Pachamama: Mestizos, Indians, and Identity Politics in the Anti-Quincentenary Campaign,"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14, No. 1, pp. 9-39.
- Hedrick, Tace(2003), *Mestizo Modernism: Race, Nation, and Identity in Latin American Culture, 1900-1940*,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Hewitt de Alcántara, Cynthia(1984),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Rural Mexic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Jenkins, Richard(1996), "Ethnicity Etcetera: Social Anthropological Points of View,"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9, No. 4, pp. 807-822.
- Knight, Alan(1990), "Racism, Revolution, and Indigenismo: México, 1910-1940," in R. Graham(eds.), *The Idea of Race in Latin America, 1870-1940*,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71-113.
- Mattiace, Shannan L.(2003), *To See with Two Eyes: Peasant Activism and Indian Autonomy in Chiapas, Mexico*,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Norget, Kristin(2004), "Knowing Where We Enter: Indigenous Theology and the Popular Church in Oaxaca, Mexico," in Edward L. Clearly and Timothy J. Steigenga(eds.), *Resurgent Voices in Latin America: Indigenous Peoples, Political Mobilization, and Religious Chang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pp. 154-186.
- Nutini, Hugo G.(1997), "Class and Ethnicity in Mexico: Somatic and Racial Considerations," *Ethnology* Vol. 36, No. 3, pp. 227-238.
- Parra Mora, León Javier y Jorge Hernández Díaz(1994), *Violencia y*

- cambio social en la región Triqui*, Oaxaca,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 Purnell, Jennie(2002), “Citizens and Sons of the Pueblo: National and Local Identities in the Making of the Mexican N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5, No. 2, pp. 213-237.
- Rahier, Jean Muteba(2004), “The Study of Latin American ‘Racial Formations’: Different Approaches and Different Context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9, No. 3, pp. 282-293.
- Schryer, Frans J.(1993), “Ethnic Identity and Land Tenure Disputes in Modern Mexico,” in John E. Kicza(ed.), *The Indian in Latin American History: Resistance, Resilience and Acculturation*,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pp. 197-214.
- Scott, George M. Jr.(1990), “A Resynthesis of the Primordial and Circumstantial Approaches to Ethnic Group Solidarity: Towards an Explanatory Model,”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3, No. 2, pp. 147-171.
- Sieder, Rachel(2002), “Recognising Indigenous Law and the Politics of State Formation in Mesoamerica,”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Indigenous Rights, Diversity and Democracy*,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184-207.
- Stavenhagen, Rodolfo(2002), “Indigenous Peoples and the State in Latin America: An Ongoing Debate,”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Indigenous Rights, Diversity and Democracy*,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24-44.
- Stephen, Lynn(1996), “The Creation and Re-Creation of Ethnicity: Lessons From the Zapotec and Mixtec of Oaxa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3, No. 2, pp. 17-37
- Stern, Alexandra Minna(2003), “From Mestizophilia to Biotypology: Racialization and Science in Mexico, 1920-1960,” in Nancy P. Appelbaum, Anne S. Macpherson, and Karin Alejandra

- Roseblatt(eds.), *Race and Nation in Modern Latin Americ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 187-210.
- Ströbele-Gregor, Juliana(1994), "From Indio to Mestizo . . . to Indio: New Indianist Movements in Bolivi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1, No. 2, pp. 106-123.
- Tejera Gaona, Héctor(1993), "La comunidad indígena y campesina de México," in Lourdes Arizpe(ed.), *Antropología breve de México*, México: Academia de la Investigación Científica, pp. 189-214.
- Tiedje, Kristina(2002), "Gender and Ethnic Identity in Rural Grassroots Development: An Outlook from the Huasteca Potosina, Mexico," *Urban Anthropology* Vol. 31, No. 3/4, pp. 261-316.
- Tilley, Virginia(1997), "The Terms of the Debate: Untangling Language About Ethnicity and Ethnic Moveme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0, No. 3, pp. 497-522.
- Tragerl, Lillian(1999), "Ethnicity and Ident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Reviews in Anthropology* Vol. 28, No. 2, pp. 109-122.
- Tresierra, Julio C.(1994), "Mexico: Indigenous Peoples and the Nation-State," in Donna Lee Van Cott(ed.), *Indigenous Peopl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Y.: St. Martin's, pp. 187-210.
- Urban, Greg and Joel Sherzer(1991), "Introduction: Indian, Nation-States, and Culture," in Greg Urban and Joel Sherzer(eds.), *Nation-States and Indians in Latin Americ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1-18.
- Valdez, Norberto(1998), *Ethnicity, Class, and the Indigenous Struggle for Land in Guerrero, Mexico*, N.Y.: Garland.
- Vasconcelos, José(1925), *La raza cósmica*, Mexico City: Espasa.
- Wade, Peter(1997),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London: Pluto.

_____ (2001), "Racial Identity and Nationalism: A Theoretical View from Latin Americ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4, No. 1, pp. 845-865.

Wolf, Eric R. and Edward C. Hansen(1972), *The Human Condition in Latin Ame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